

론 뮤엑

《조각의 25년, 1996-2021》

2021년 10월 13일 - 11월 13일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론 뮤엑

《조각의 25년, 1996-2021》

타데우스 로팍 런던 일리 하우스
37 도버 스트리트, 런던 W1S 4N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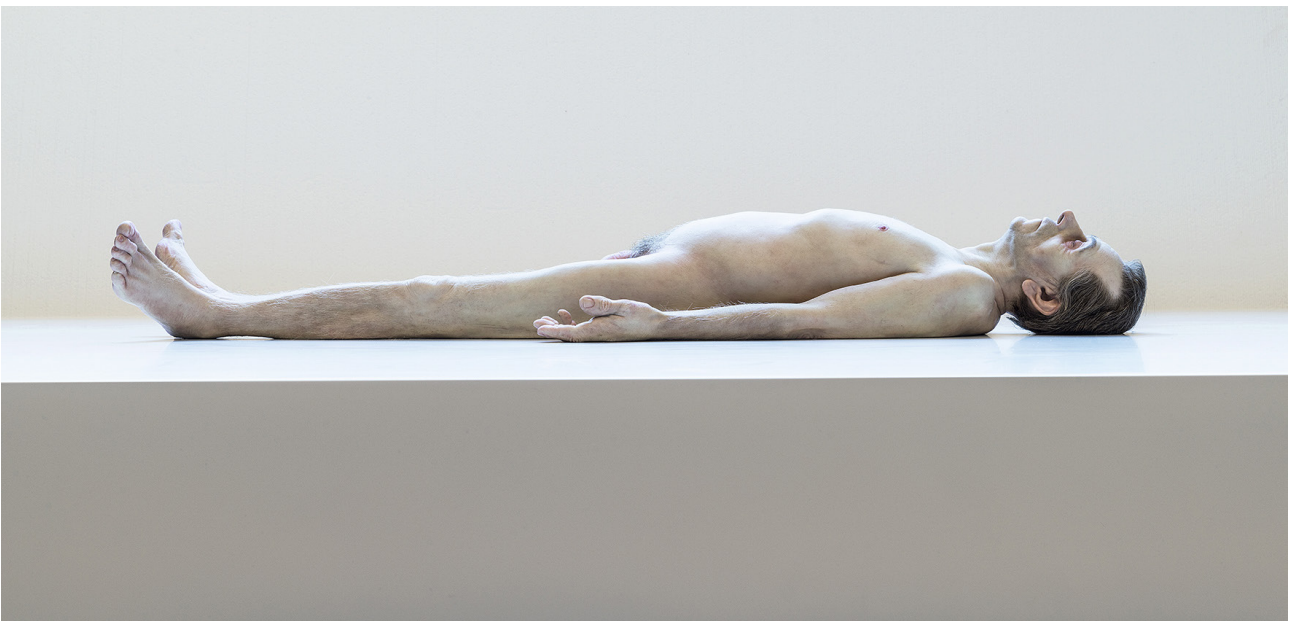
2021년 10월 13일 — 11월 13일

《론 뮤엑: 조각의 25년, 1996-2021》은 타데우스 로팍에서 개최되는 론 뮤엑의 첫 번째 전시로, 국제적으로 호평 받는 우리 시대 조각가의 작품을 조망하는 전시이다. 《론 뮤엑: 조각의 25년, 1996-2021》은 작가의 25년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의 작업 세계를 수놓은 대표작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신작들 또한 총망라하여 선보인다. 뮤엑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디테일을 묘사하는 독보적인 시선은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해 죽음이라는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는 인간으로서의 경험 전반을 기록하며 관람객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뮤엑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과 경험을 생산하기 위해 강렬한 개인적 생각과 감정, 경험들을 끌어들이고, 관람객들이 그들의 취약함을 그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뮤엑과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재스퍼 샤프(Jasper Sharp), 미술사가 및 큐레이터 (해당 전시 도록에 글을 기고할 예정)

뮤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Dead Dad〉(1996-7)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1997년 왕립 미술 아카데미(Royal Academy)에서 시대를 정의하는 전시라는 평을 받으며 개최된 《Sensation: Young British Artists from the Saatchi Collection》에서 최초로 공개되었고, 이 전시를 통해 뮤엑은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Dead Dad〉는 찰스 사치(Charles Saatchi)에게 소장되었고, 이후 스테판 에들리스(Stefan T. Edlis)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Sensation: Young British Artists from the Saatchi Collection》을 방문한 많은 관람객들이 이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Dead Dad〉는 인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충격적으로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마치 예기치 못한 트라우마처럼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긴다. 뮤엑의 초기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그만의 개성을 즉각적으로 보여준다. —로버트 로젠블룸(Robert Rosenblum), 〈론 뮤엑〉, 2005



Ron Mueck, *Dead Dad*, 1996-1997
Mixed media, 20 x 38 x 102 cm (7.87 x 14.96 x 40.16 in)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Ron Mueck, Youth, 2009/2011
Mixed media, 65 x 28 x 16 cm (25.59 x 11.02 x 6.3 in)

본 전시에 관한 글을 저술한 미술사가 재스퍼 샤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1623)에 등장하는 ‘세상이란 모두가 하나의 무대이다’라는 독백을 참조하여, 일곱 연령대의 남성을 주체로 뮤엑의 조각들을 살펴본다. 전시된 작품들은 로버트 로젠블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묘사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경험 전반을 기록하는데, 이는 유아, 남학생, 젊은 애인, 군인, 중년, 노년,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다시 찾아온 철없음과 망각’을 포괄한다.

〈Mother and Child〉(2003)는 뮤엑이 처음으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한 쌍의 인물을 표현한 작품으로, 출산 직후 어머니와 아기가 분리된 존재로서 처음 만나는 순간을 보여준다. 새롭게 형성된 관계의 심리적 복잡성을 나타내는 이 작품에서 두 인물은 탯줄에 의해 서로 연결된 채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물리적 가까움의 이면에는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숨어 있다.

〈Youth〉(2009/2011)은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옆구리를 들춰 보이는 젊은 흑인 남자의 모습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은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뤘던 옛 거장들의 작품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현대사회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이 작고 연약한 학생이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집단적 실패에서 오는 극적인 순간으로 끌어들이는다. 이 작품은 최근 런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개최된 《Sin》(2020-21)에서 선보여진 바 있다.

〈Woman with Shopping〉(2014)에서 뮤엑은 처음 부모가 되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샤프는 이 작품을 셰익스피어의 군인 캐릭터와 연관시킨다. 〈Mother and Child〉가 출산과 그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탐구였다면, 이 작품은 그 이후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관람객은 출생의 여파로 아이를 가슴에 묶어 매고 양 손에는 장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있는 피곤한 얼굴의 여성을 마주하게 된다. 어머니와 아이의 물리적 근접성을 강조한 이 작품에서 뮤엑은 어머니를 ‘수렵꾼’, ‘채집인’, ‘가족부양자’라는 자신의 역할을 체념한 듯 먼 곳을 응시하는 형상으로 묘사하며 오히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된 느낌을 부각시킨다.

처음으로 전시되는 〈Dark Place〉(2018)는 낮은 조명 아래 주체의 감정적인 혼란을 발가벗긴 채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어떠한 허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의 첫 자화상이었던 찡그리는 표정의 〈Mask〉(1997)를 포함한 초기 작업들로부터 기인한다. 뮤엑은 당초 최근의 모습으로 자화상을 다시금 작업하려 했으나, 당시 스튜디오로 초빙하여 만난 사진작가의 고민에 빠져 심란한 모습에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Ron Mueck, *Couple Under an Umbrella*, 2013/2015
Mixed media, 275 x 455 x 330 cm (108.27 x 179.13 x 129.92 in)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 하나인 <Couple Under an Umbrella>(2013/2015)은 다채로운 색상의 파라솔 아래 쉬고 있는 노년의 커플의 모습이다. 그들의 노화된 몸과 무심한 친밀성을 실제 형상의 두 배 크기로 조각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물리적 취약성과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보여준다. 작품 속 거대한 인물들 사이에서 관람객은 새롭고 낮은 위치에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우리의 신체가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 의식하도록 유도한다.

<Dead Dad>(1996-97)와 더불어 가장 최근작인 <Dead Weight>(2021)에서 뮤엑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 ‘최후의 장면’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이 마주할 필연적 죽음을 거대한 규모의 조각으로 상기시켜주는 <Dead Weight>는 이 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그의 첫 주철 조각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갤러리 1층에 위치한 1톤에 달하는 이 해골 작품은 뮤엑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해골 연구의 연장이며,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트리엔날레(National Gallery Victoria Triennial)에서 선보였던 <Mass>(2016-17)를 떠올리게 한다. <Dead Weight>는 제작 과정의 모든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의 이전 작품들과 구별된다. 재스퍼 샤프는 이 작품에 대해 ‘접합선과 상처들, 분명히 이것은 진짜 해골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죽은 아버지에게서 영혼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이 해골에서도 영혼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이 마주할 필연적 죽음을 크게 상기시켜주는 <Dead Weight>은 그의 첫 주철 조각이자 처음 전시되는 작품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갤러리 1층에 위치한 1톤 무게의 작품은 해골이라는 주제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탐구를 이어가며,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트리엔날레(National Gallery Victoria Triennial)에 설치했던 작품 <덩어리(Mass)>(2016-17)의 해골 100개를 떠올리게 한다. 무거운 짐>은 제작 과정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전 작품들과 구별된다. ‘접합선과 상처들, 분명 이것은 진짜 해골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치 죽은 아버지에게서처럼 영혼이 존재함을 느끼게 한다’고 샤프는 말한다.

이러한 영혼 혹은 생명력이 뚜렷한 존재들은 뮤엑의 인물에 설득력을 더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공동의 인류가 처하게 되는 도전이나 위험에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적 경험에 대한 그의 내밀한 성찰은 동료애와 연민에서부터 연약함과 상실까지를 아우르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미 살아보았던 연령대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연령대에서 자신의 내면적 반응이 어떠할지 대면하게 한다.